인터넷 열풍으로 교육열기 후끈

최근 인터넷매트릭스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하면 2000년 말에는 국내 인터넷 인구가 1,100만명, 월드컵이 열리는 2002년에는 전체 국민의 절반이 인터넷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인터넷 사업의 근원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비즈니스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 박민식 기자

인터넷 비즈니스 인력난 심화

인터넷 비즈니스 전문가들의 몸값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각 인터넷 업체들이 처리해야 하는 네트웍 관리 및 마케팅 업무는 쌓여가는 데도 이를 가공, 처리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비즈니스 벤처 업체는 물론 인력이 풍부한 대기업조차 인터넷 비즈니스 인력을 구하지 못해 구인난을 겪고 있을 정도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의 인터넷 업체의 주가 급등과 세계 경제의 급속한 인터넷 경제화로 인해 인터넷 벤처 기업의 창업의 확대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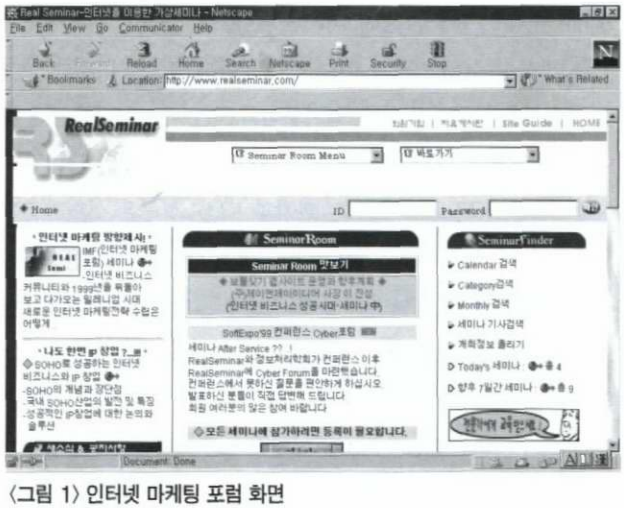
또한 업계에서는 "인터넷 비즈니스 전문가의 스카우트 비용은 부르는대로"라는 말도 자주 들을 수 있다. 일반 관리직의 찬바람이 사회를 휩쓸고 있지만 인터넷 비즈니스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마케팅 관련 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태다. 이것은 기존 인터넷 업체들이 기존 비즈니스에 대한 마케팅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업체마다 우수한 마케팅 인력을 확보하고 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인터넷 비즈니스 시장에 당장 필요한 인터넷 비즈니스 전문가 상당수지만 워낙 전문인력이 많지 않아 스카우트 열풍은 지속될 것"이라며, "당분간 인터넷 전문인력 부족현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잇따른 교육 강좌 개설

인터넷 비즈니스 전문가의 수요가 많다보니 관련인력을 배양하는 교육과정이 잇달아 개설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 비즈니스 교육 기관으로 가장 잘 알려진 교육센터로는 이코퍼레이션을 비롯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인터넷 비즈니스 아카데미의



〈그림 1〉 인터넷 마케팅 포럼 화면

교육센터, 생산성본부 등이 있다.

이코퍼레이션의 경우 업계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e-CEO과정을 비롯해 인터넷 사업기획 실전워크샵 등 4개의 과정을 운영중이다. 이코퍼레이션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흐름을 익힐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 구축 실무과정과 인터넷 비즈니스 프로모션 과정을 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과정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본 개념을 비롯해 쇼핑몰 사업 전략 수립 방법, 구축, 운영의 노하우 및 마케팅에 대한 실무 과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은 마케팅 담당자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및 창업 예정자이다. 인터넷 프로모션 과정은 인터넷 비즈니스 단계별 이해와 다양한 홈페이지 프로모션 방법론, 사후 분석을 통한 마케팅 활용 능력을 훈련시켜 준다.

인터넷 비즈니스 아카데미의 경우 인터넷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EC전문가 과정, 인터넷 활용 실습 과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생산성 본부 등에서도 인터넷 비즈니스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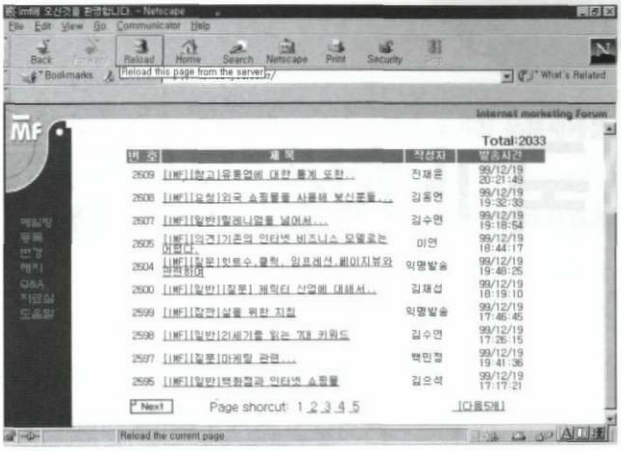
이들 교육기간은 통상 3일 과정부터 3달 과정까지의 다양한 형태로 진행 중에 있다. 이들의 과정은 대부분 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어 비용 40~60%의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최근 인터넷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관련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인력 300명을 선발해 국내외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인터넷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특징은 인터넷기술의 핵심인 라우터 및 서버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것으로 국내 연수 외에 시스코나 오라클에 파견한다.

이밖에도 삼성SDS, 오라클, 한국HP 등의 대형 업체들도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거나 실시중에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들 교육은 아직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인터넷 비즈니스 업계에 종사할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 정보 사이트 부상

오프 라인 교육과 더불어 인터넷 비즈니스 정보 사이트를 통한 노하우 습득 방법도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비즈니스와 관련된 정보 제공 사이트 중 가장 눈에 띄는 사이트는 아이비즈넷(www.i-biznet.com)이다. 아이비즈넷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터넷 비즈니스와 관련된 분석적인 뉴스와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 주제를 다루는 특별기획 등이다.



〈그림 2〉 인터넷 비즈니스 세미나 제공사이트 '리얼세미나'

또한 인터넷에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한 '비즈니스 가이드', 실제 인터넷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안내하는 '실전 가이드', 웹사이트 개발을 위한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개발 가이드' 등을 제공한다. 이 사이트를 통하면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기본 감각을 익힐 수 있다.

더불어 인터넷 마케팅 포럼(imf.web4you.co.kr) 사이트에 가입하면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최신 정보를 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비즈니스 전문가 간의 의견 및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인터넷 상으로 각종 비즈니스 세미나를 들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리얼세미나(www.realseminar.com)는 공개된 세미나 자료를 수집, 가공한 후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네티즌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마치 한번 방송된 프로그램을 다시 송출하거나 영화의 비디오 출시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현재 인터넷 관광 비즈니스를 비롯해 인터넷 무역/해외 시장조사 세미나, 인터넷 마케팅 포럼 세미나, 인터넷 시장현황분석 국제세미나, SOHO로 성공하는 인터넷 비즈니스와 IP 창업 등의 전문 세미나를 접할 수 있다.

리얼세미나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로는 세미나 텍스트 자료는 물론 발표자의 육성을 세미나 현장에서 녹음한 후 리얼오디오를 이용하여 생생하게 재현해 현장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점이다.